

교과서는 지학사
수업지원자료는 티솔루션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①, ② 교과서와 함께 보는

유네스코 유산

모음집

• 이 자료는 지학사 티솔루션
(<https://tsol.jihak.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학사

중학교 역사 ①, ② 교과서와 함께 보는

유네스코 유산

모음집



지학사

차례

세계사편

01. 베제르 계곡의 선사 유적지와 동굴 벽화	06
02. 멤피스와 네크로폴리스	07
03. 모헨조다로 고고 유적	08
04. 페르세폴리스	09
05.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10
06. 만리장성	11
07.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단지	12
08. 대운하	13
09.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	14
10. 아잔탄 석굴	15
11. 이스탄불 역사 지구	16
12. 피사의 두오모 광장	17
13. 아비뇽 역사 지구	18
14. 트리어 로마 유적, 성 베드로 성당과 성모 마리아 성당	19
15. 베이징과 선양의 명과 청 시대 황궁	20
16. 히메지성	21
17. 사마르칸트-문화 교차로	22
18. 멕시코시티와 소치밀코 역사 지구	23
19. 마추픽추 역사 보호 지구	24
20. 마드리드의 에스코리알 수도원 유적	25
21.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26
22.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지구와 관련 기념물군	27
23. 포츠담·베를린의 궁전과 공원	28
24. 독립 기념관	29
25. 파리의 센강 변	30
26. 솔테어	31
27. 베이징의 황실 정원, 이화원	32
28.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33
29. 골레스탄 궁전	34



한국사편

01.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36
02. 백제 역사 유적 지구	37
03. 가야 고분군	38
04. 석굴암과 불국사	39
05. 경주 역사 유적 지구	40
06. 해인사 장경판전	41
07.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	42
08. 불조직지심체요절-하권	43
09. 종묘	44
10. 훈민정음(해례본)	45
11. 한국의 유교 책판	46
12. 조선왕조실록	47
13. 승정원일기	48
14. 조선 왕릉	49
15. 한국의 서원	50
16. 난중일기	51
17. 동의보감	52
18. 남한산성	53
19.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	54
20.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55
21. 창덕궁	56
22. 일성록	57
23. 화성	58
24.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59
25. 조선 왕조 의궤	60
26.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	61
27.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62
28. 4·19 혁명 기록물	63
29. 1980년 인권 기록 유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64

유네스코 유산의 뜻과 등재 기준



유네스코 유산의 뜻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 유산에는 세계 유산,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본 책에서는 중학교 역사 ①, ②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유네스코 세계 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을 골라 소개한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기준

세계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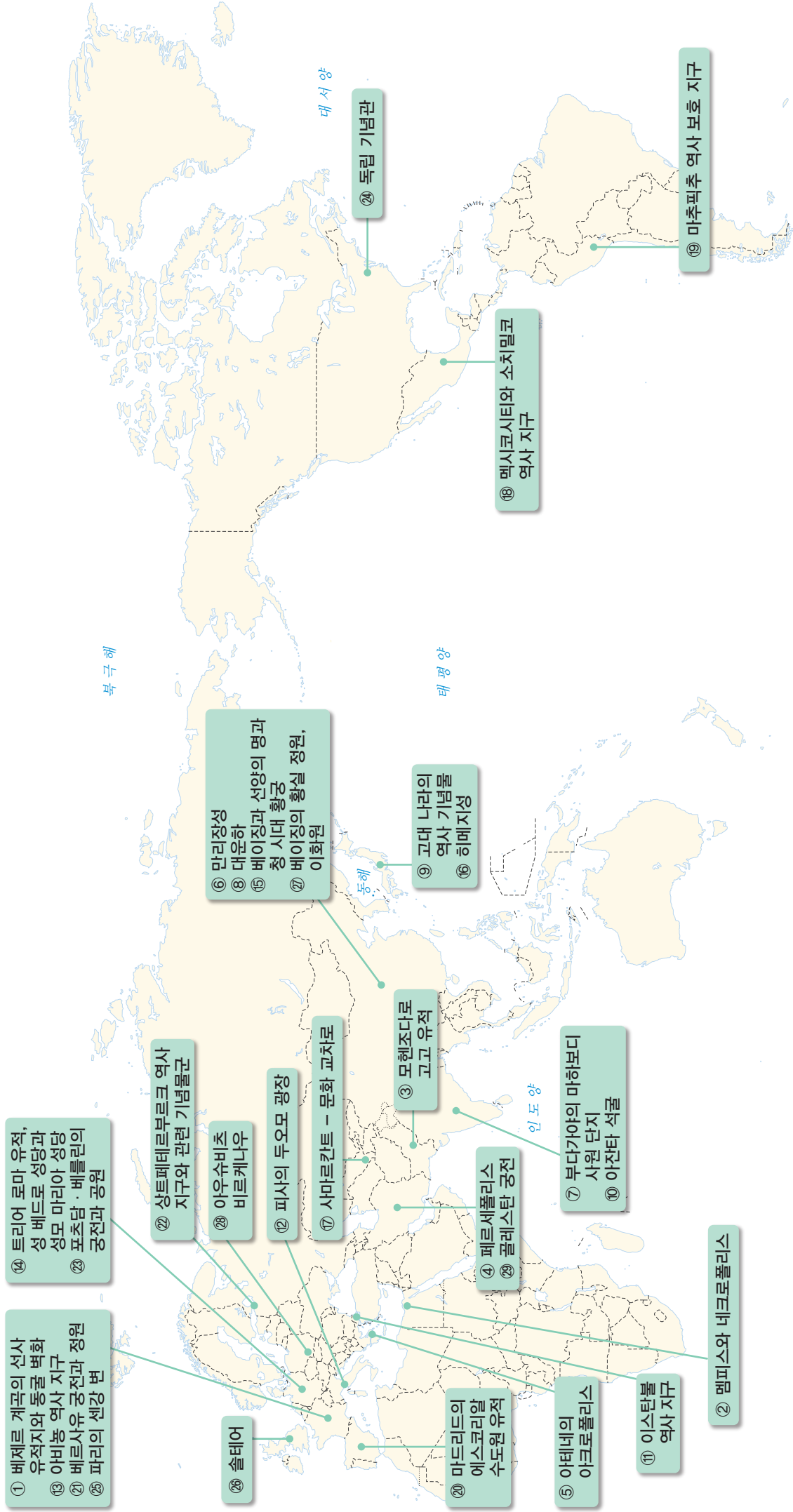
-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 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 (v)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 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vi) 사건이나 살아 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은 여타 기준과 연계해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세계 기록 유산

주요 기준	진정성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이어야 한다.
	독창성, 대체 불가능성	특정 시대나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유산이 훼손되거나 손실되면 인류 유산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산이어야 한다.
	세계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 •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요한 표본이 되어야 한다.
보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해야 한다. • 온전히 하나로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 유산의 보존 상태가 각종 위험 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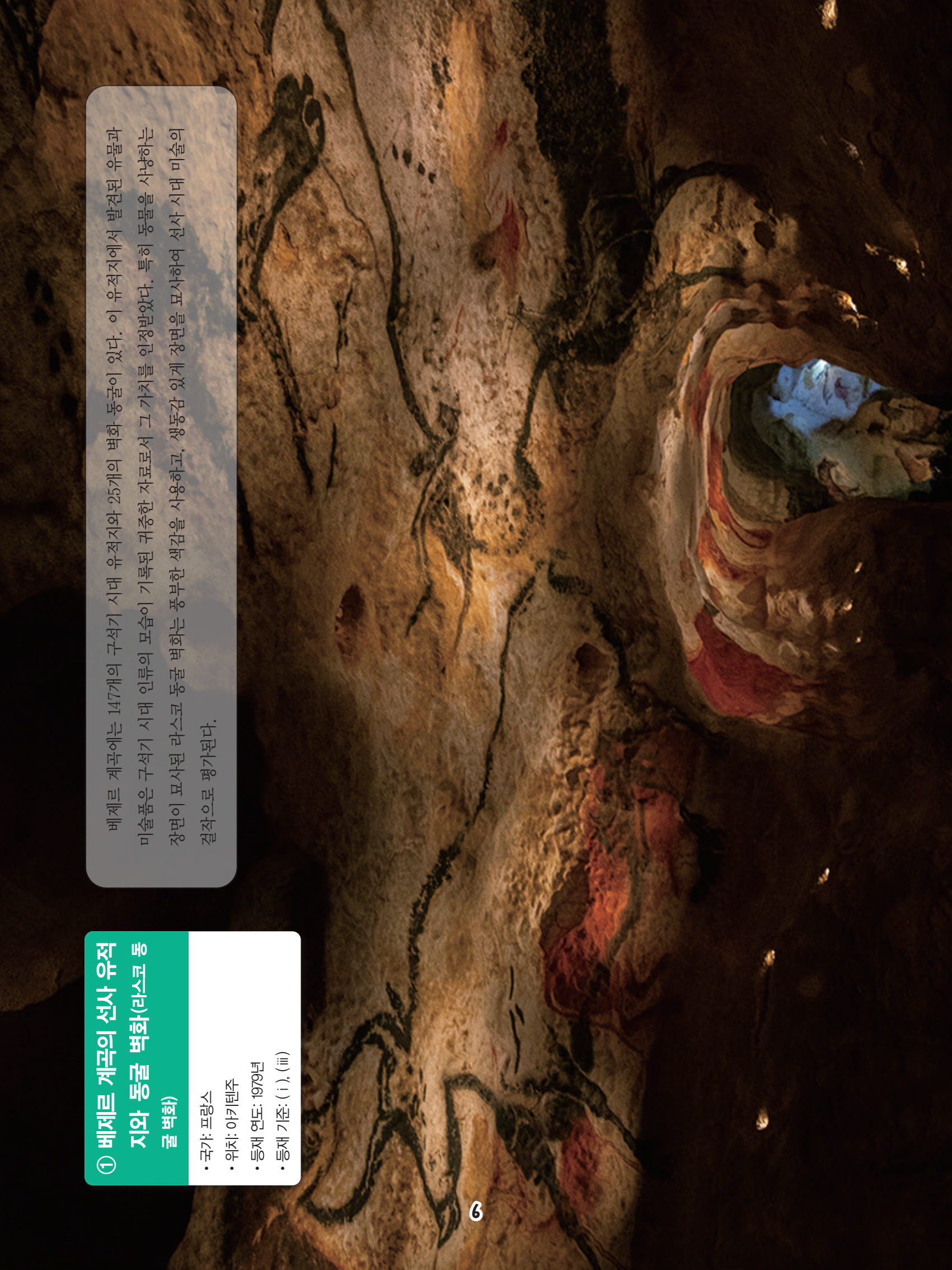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 유산 세계사편



① 베제르 계곡의 선사 유적 지와 동굴 벽화(라스코 동 굴 벽화)

- 국가: 프랑스
- 위치: 아키텐주
- 등재 연도: 1979년
- 등재 기준: (i), (iii)

베제르 계곡에는 147개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와 25개의 벽화 동굴이 있다.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과 미술품은 구석기 시대 인류의 모습이 기록된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묘사된 라스코 동굴 벽화는 풍부한 색감을 사용하고, 생동감 있게 장면을 묘사하여 선사 시대 미술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② 멤피스와 네크로폴리스 (피라미드)

- 국가: 이집트
- 위치: 기저주
- 등재 연도: 1979년
- 등재 기준: (i), (iii), (vi)

멤피스와 네크로폴리스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수도인 멤피스와 기저(Giza)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적으로, 바위 무덤, 고대 이집트의 석실 분묘, 사원, 피라미드 등의 장례 기념물들이 있다. 멤피스의 건물은 거대한 고대의 기념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특히 피라미드는 독특한 예술적 업적이자 인간의 창의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 기념물들에 대한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인 관심은 이곳이 위대한 문명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모헨조다로 고고 유적

- 국가: 파키스탄
- 위치: 신드주
- 등재 연도: 1980년
- 등재 기준: (ii), (iii)

모헨조다로 고고 유적은 인도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정교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이다. 높은 시대에는 광장, 제단 등의 공공 구역이 있고, 낮은 시대에는 일반 시민들의 주거 지역이 있다. 흙이나 나무를 사용한 다른 문명권과는 달리 견고한 벽돌로 대부분의 건축물을 지었다. 정교한 배수 시설과 청동 도구, 금 장신구와 같은 출토 유물은 당시의 발달된 도시 생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④ 페르세폴리스

- 국가: 이란
- 위치: 파르스주
- 등재 연도: 1979년
- 등재 기준: (i), (iii),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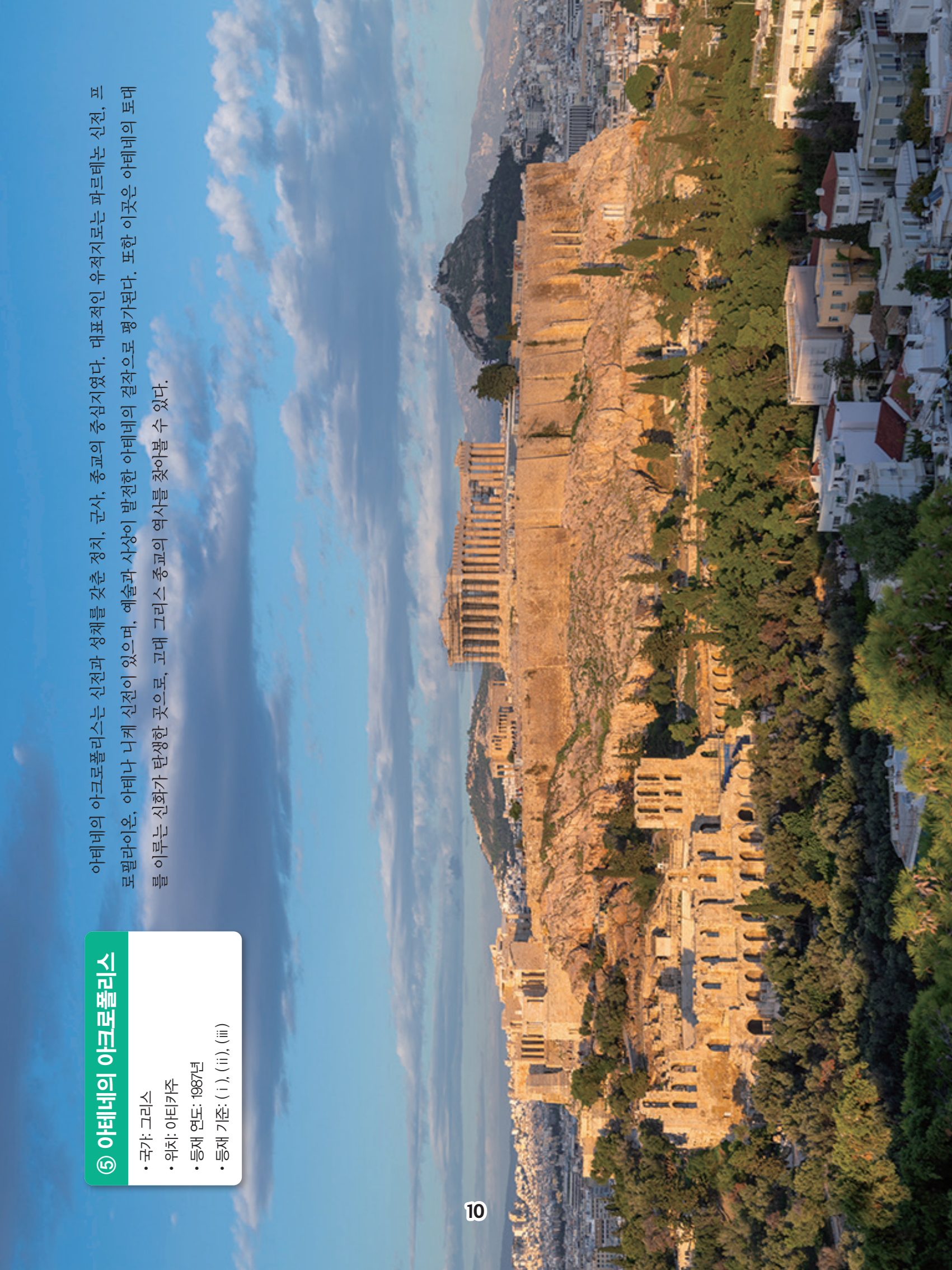
페르세폴리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로,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졌다. 산의 경사진 부분을 잘라 내어 거대한 석조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왕궁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을 세웠다. 현재는 그 일부만이 남아 있지만, 황소상이 있는 궁전 입구와 사절단을 맞이하는 알현실인 아파다나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융합한 독특한 형태의 유적을 통해 고대 페르시아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 수 있다.



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 국가: 그리스
- 위치: 아티카주
- 등재 연도: 1987년
- 등재 기준: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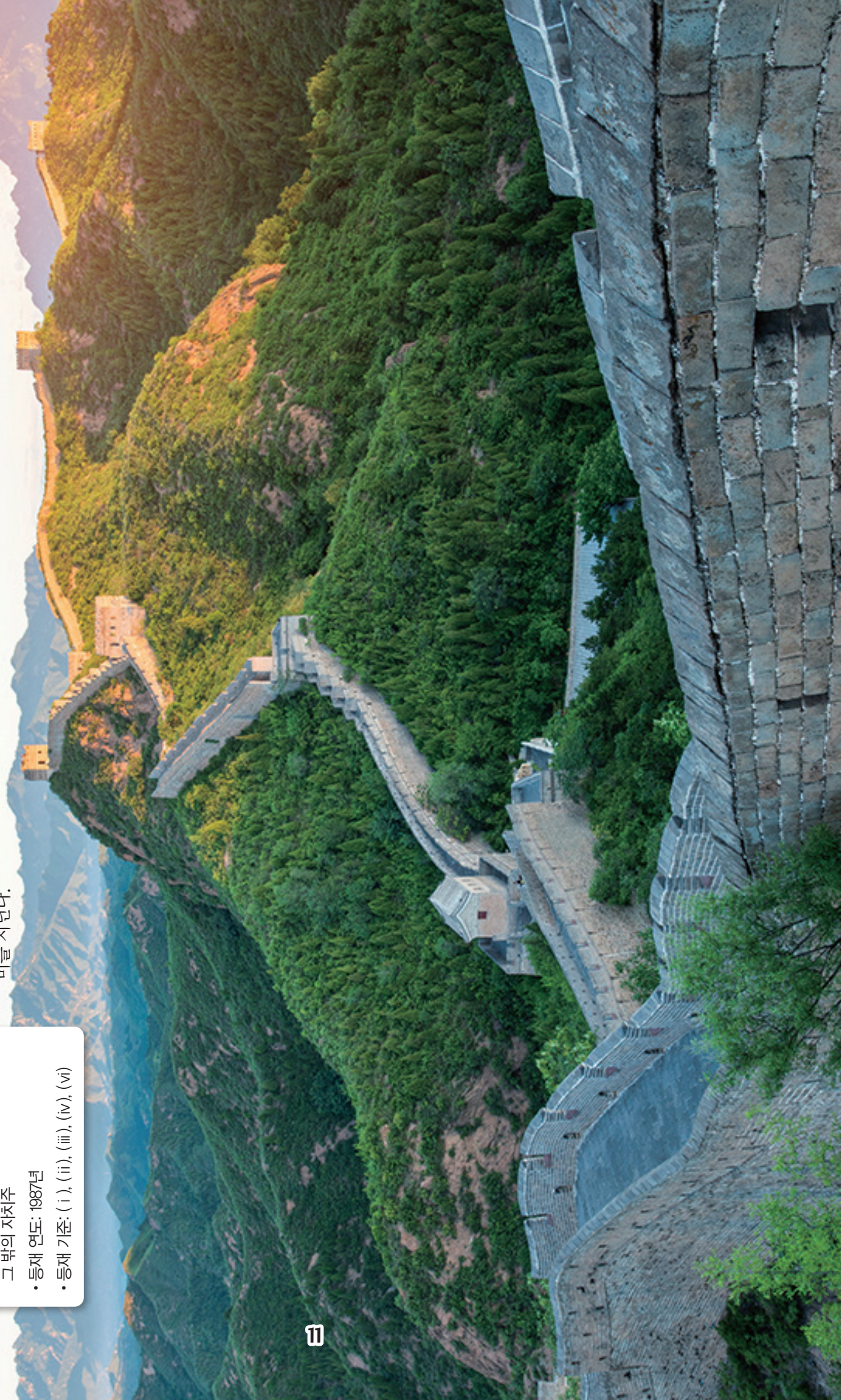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신전과 성채를 갖춘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였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파르테논 신전, 프로펠라이온, 아테나 니케 신전이 있으며, 예술과 사상이 발전한 아테네의 결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곳은 아테네의 토대를 이루는 신화가 탄생한 곳으로, 고대 그리스 종교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⑥ 만리장성

- 국가: 중국
- 위치: 라오닝, 지린, 허베이 등의 성과 그 밖의 자치주
- 등재 연도: 1987년
- 등재 기준: (i), (ii), (iii), (i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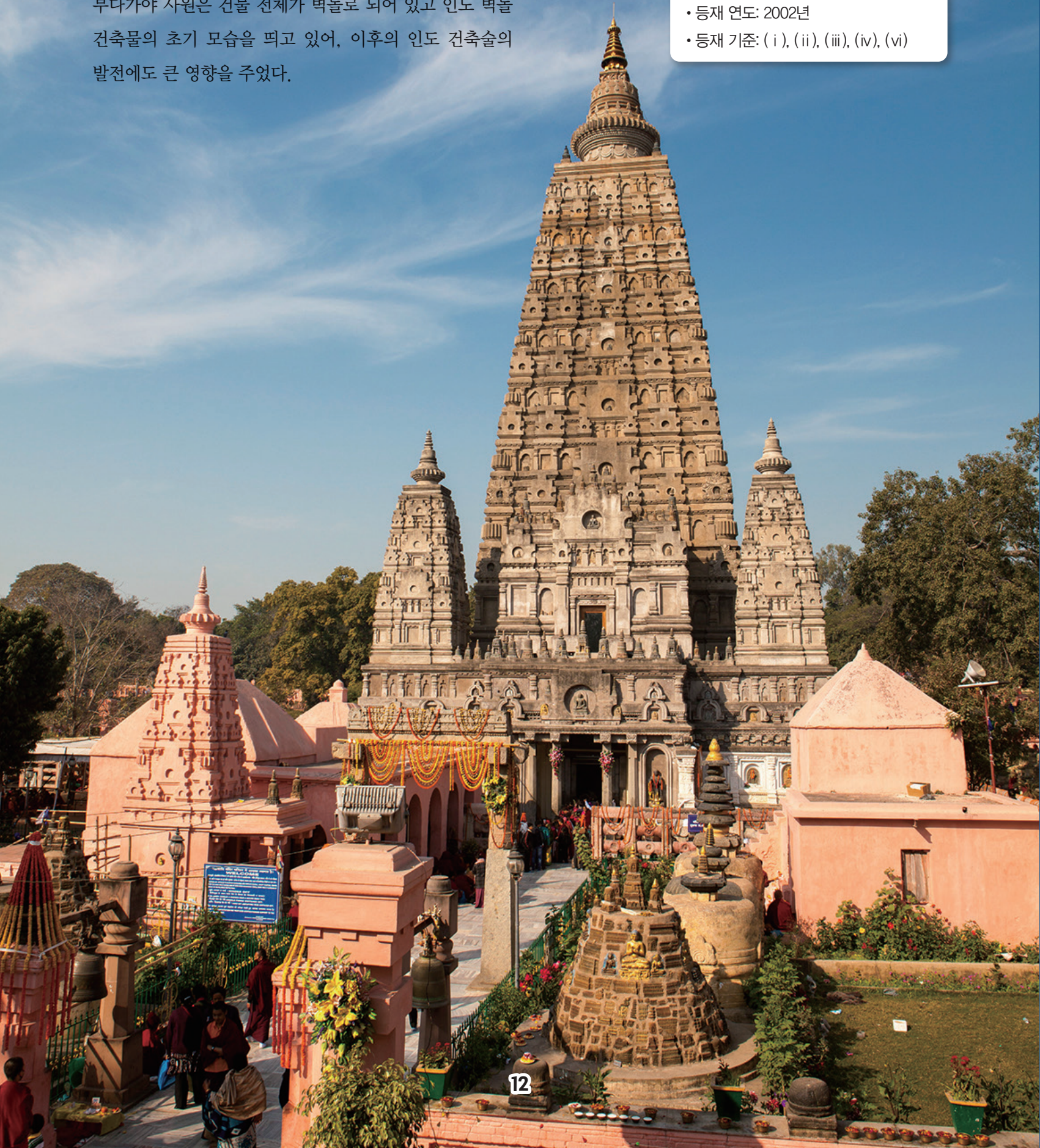
만리장성은 중국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고자 쌓은 성으로, 여러 시대와 왕조를 거치면서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시설물이다. 산의 가파른 비탈면을 따라 정교하게 쌓은 성벽은 광대한 대륙의 정치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북방 민족의 관습으로부터 고유한 중국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마하보디 사원 단지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관련된 4개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만들어졌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졌고, 5세기에서 6세기 굽타 왕조 시기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부다가야 사원은 건물 전체가 벽돌로 되어 있고 인도 벽돌 건축물의 초기 모습을 띠고 있어, 이후의 인도 건축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⑦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단지(마하보디 사원)

- 국가: 인도
- 위치: 인도 동부 비하르주
- 등재 연도: 2002년
- 등재 기준: (i), (ii), (iii), (iv), (vi)



⑧ 대운하

- 국가: 중국
- 위치: 베이징에서 저장성 일대
- 등재 연도: 2014년
- 등재 기준: (i), (iii), (iv), (vi)

대운하는 북쪽의 베이징으로부터 남쪽의 저장성까지 이어지는 긴 수로 체계로 중국의 북동부와 중동부 평야를 관통한다. 서기 7세기경 수 왕조 시대에 교통수단으로 고안되어 만들어졌고, 그 후 일련의 공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대운하는 중국의 내륙 통신 체계, 곡물과 물자의 운송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이었다. 중국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㉑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 물(도다이지)

- 국가: 일본
- 위치: 나라현
- 등재 연도: 1998년
- 등재 기준: (ii), (iii), (iv), (vi)

나라는 710년부터 784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지역이다. 나라가 국가로서 의 기틀을 확립하면서 건축한 건축물과 건축 물의 터가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나라 는 일본 문화의 근원지로 부상하여 번영을 누렸다. 현재 남아 있는 사원, 신사, 궁터 등 수많은 역사적 기념물은 정치적·문화적 변혁기이던 8세기 일본 수도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⑩ 아잔타 석굴

- 국가: 인도
- 위치: 마하라슈트라주
- 등재 연도: 1983년
- 등재 기준: (i), (ii), (iii),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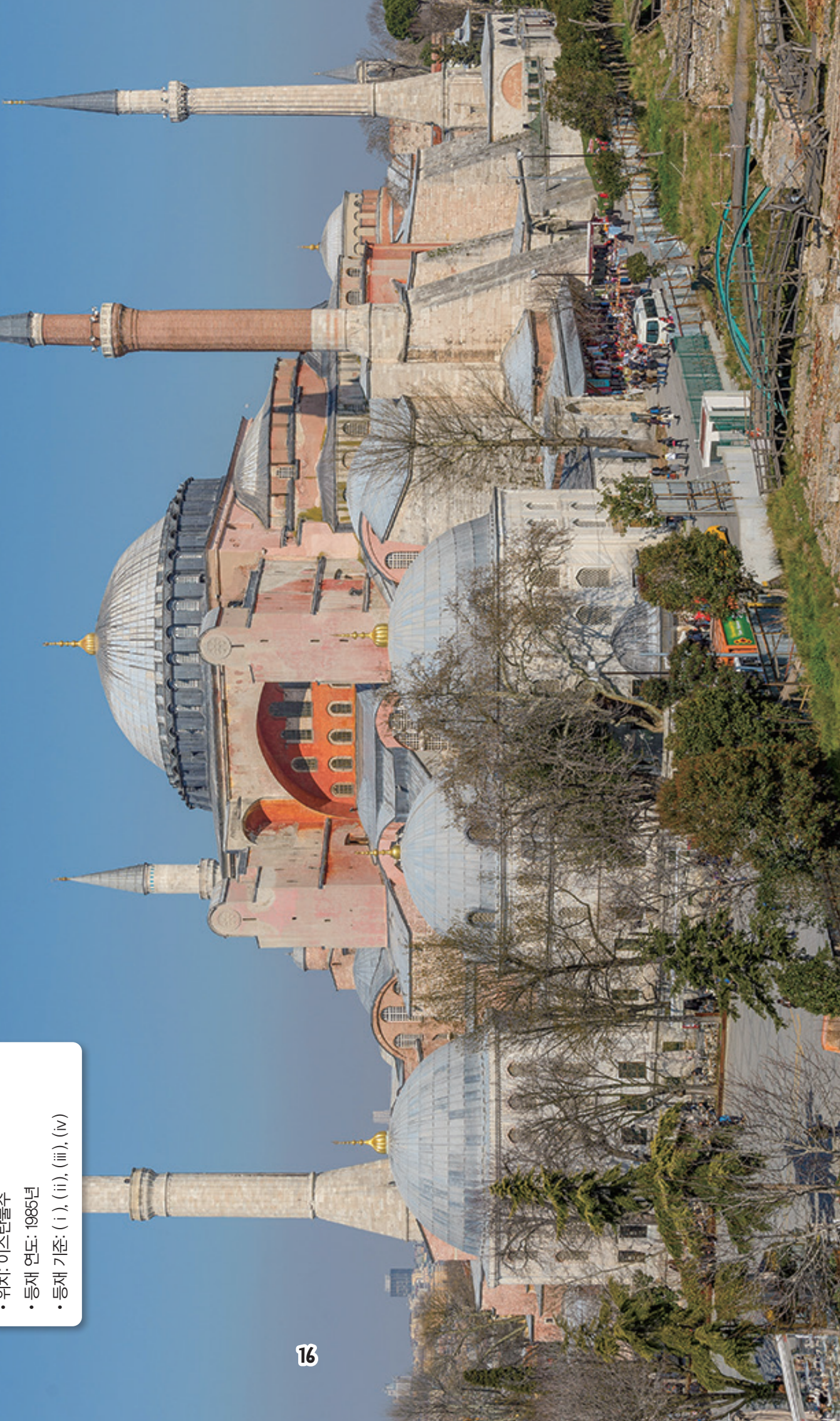
아잔타 석굴은 2세기 아잔타 시기 초기와 기원후 5~6세기경 굽타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초기 불교 석굴 기념물이다. 인도의 풍속이나 불교에 관한 것들이 벽면만이 아니라 기둥, 대들보, 천장 등 광대한 공간의 구석구석에 풍부하고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벽화와 조각은 당시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⑪ 이스탄불 역사 지구(성 소 피아 대성당)

- 국가: 튀르키예
- 위치: 이스탄불주
- 등재 연도: 1985년
- 등재 기준: (i), (ii), (iii), (iv)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고, 고대 로마의 영역이자 비잔티움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종교·예술의 중심지였다. 이 도시 안에는 고대 로마와 두 제국의 문화가 반영된 건축물과 여러 예술 작품이 남아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고대 전차 경기장, 6세기에 건축된 성 소피아 대성당, 16세기에 건축된 술탄아이마니예 모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12 피사의 두오모 광장

- 국가: 이탈리아
- 위치: 토스카나주
- 등재 연도: 1987년(2007년 부분 수정)
- 등재 기준: (i), (ii), (iv),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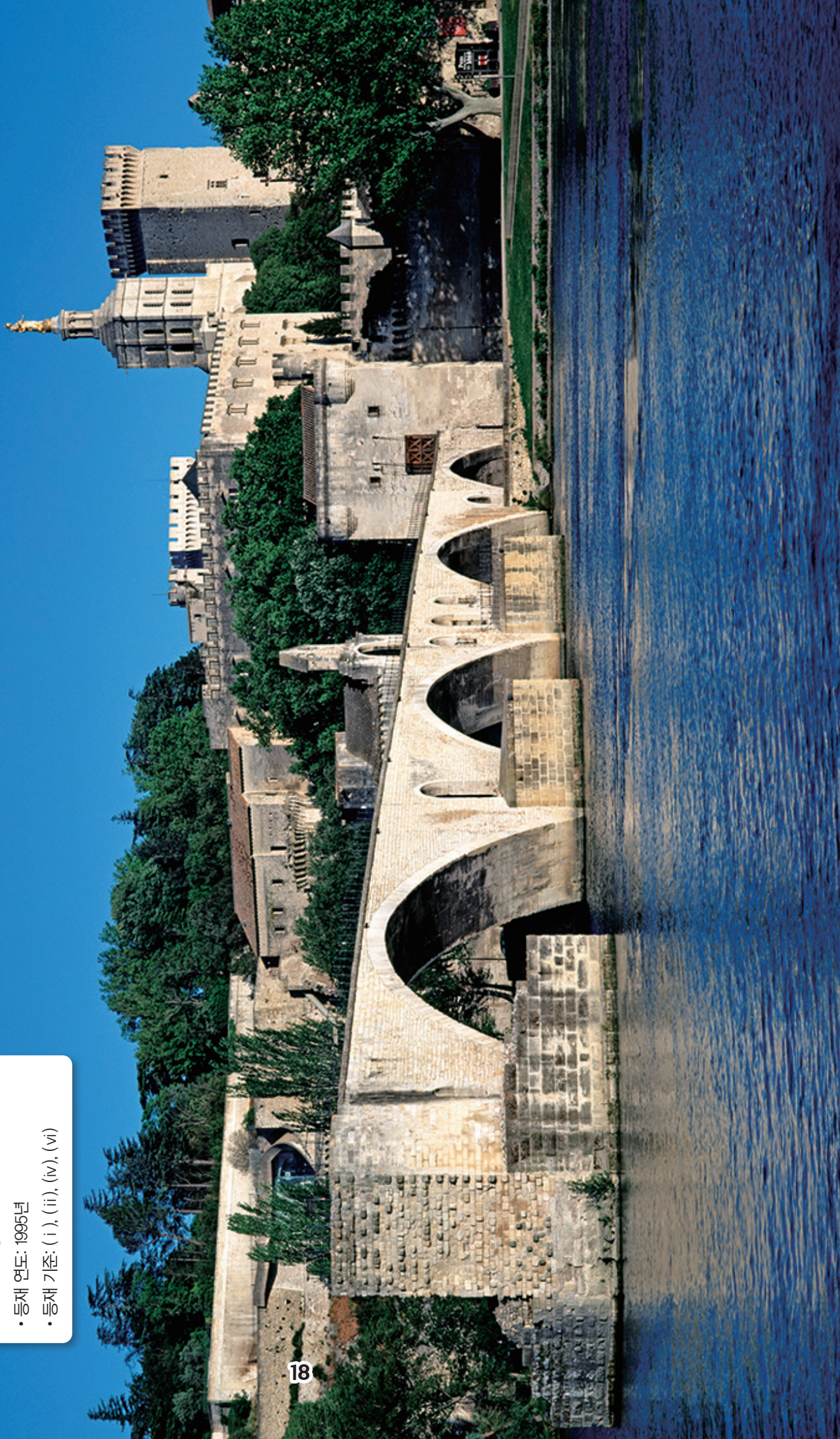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 주의 피사의 두오모 광장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념물이 많이 있다. 그중 대성당과 세레당, 피사의 사탑, 납골당은 중세 건축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 건축물들은 11세기부터 14세기 이탈리아의 기념물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⑬ 아비뇽 역사 지구(아비뇽 교황청)

- 국가: 프랑스
- 위치: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주
- 등재 연도: 1995년
- 등재 기준: (i), (ii), (iv), (vi)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아비뇽은 14세기에 로마 교황의 거처였다. 이 지역에 위치한 유적들은 아비뇽이 14세기 유럽 크리스티교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음을 보여 준다. 아비뇽 교황청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그 아래에는 교황청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프티팔레 미술관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노트르담 성당이 위치한다.



⑭ 트리어 로마 유적, 성 베드로 성당과 성모 마리아 성당(트리어 대성당)

- 국가: 독일
- 위치: 라인란트팔츠주
- 등재 연도: 1986년
- 등재 기준: (i), (iii), (iv), (vi)

트리어는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대규모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3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 중 하나가 되어 더욱 번성하였다. 현재까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로마 문명을 느낄 수 있다.



⑮ 베이징과 선양의 명과 청 시대 황궁(자금성)

- 국가: 중국
- 위치: 베이징시, 선양시
- 등재 연도: 1987년(2004년 확장)
- 등재 기준: (i), (ii), (iii), (iv)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은 약 500년간 중국 최고 권력의 중심지에 있던 황궁이다. 자금성과 자금성에 있는 유물들은 명과 청 시대 중국 문명의 가장 귀중한 유물로 여겨진다. 또한 선양에 위치한 황궁은 114개의 궁으로 이루어진 청 왕조 시대의 건축물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중국 왕조의 중요한 기반이었으나 이후 자금성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두 황궁은 중국 황실 건축의 발전을 보여 주며, 청 왕조와 그 이전 왕조의 문화적 전통까지 아우르는 중국 건축 발전의 중요한 증거이다.



16 히메지성

- 국가: 일본
- 위치: 효고현
- 등재 연도: 1993년
- 등재 기준: (i), (iii), (iv)

히메지성은 17세기 초 일본 성곽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고도의 방어 체계와 정교한 보호 장치를 갖춘 총 8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히메지성은 목조 건축으로 백색 토벽으로 통일된 우아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과 여러 겹포의 이루어진 지붕 사이의 섬세한 배치가 돋보인다.



⑰ 사마르칸트 - 문화 교차로

- 국가: 우즈베키스탄
- 위치: 사마르칸트주
- 등재 연도: 2001년
- 등재 기준: (i), (ii), (iv)

사마르칸트는 세계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곳으로, 티무르 제국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 주요 건축 물로는 울루그베그 천문대와 레기스탄 모스크, 이슬람 고등 교육 기관인 마드라사, 비비하눔 모스크 등이 있다.



⑩ 멕시코시티와 소치밀코 역사 지구(테노치티틀란)

- 국가: 멕시코
- 위치: 멕시코시티 일대
- 등재 연도: 1987년
- 등재 기준: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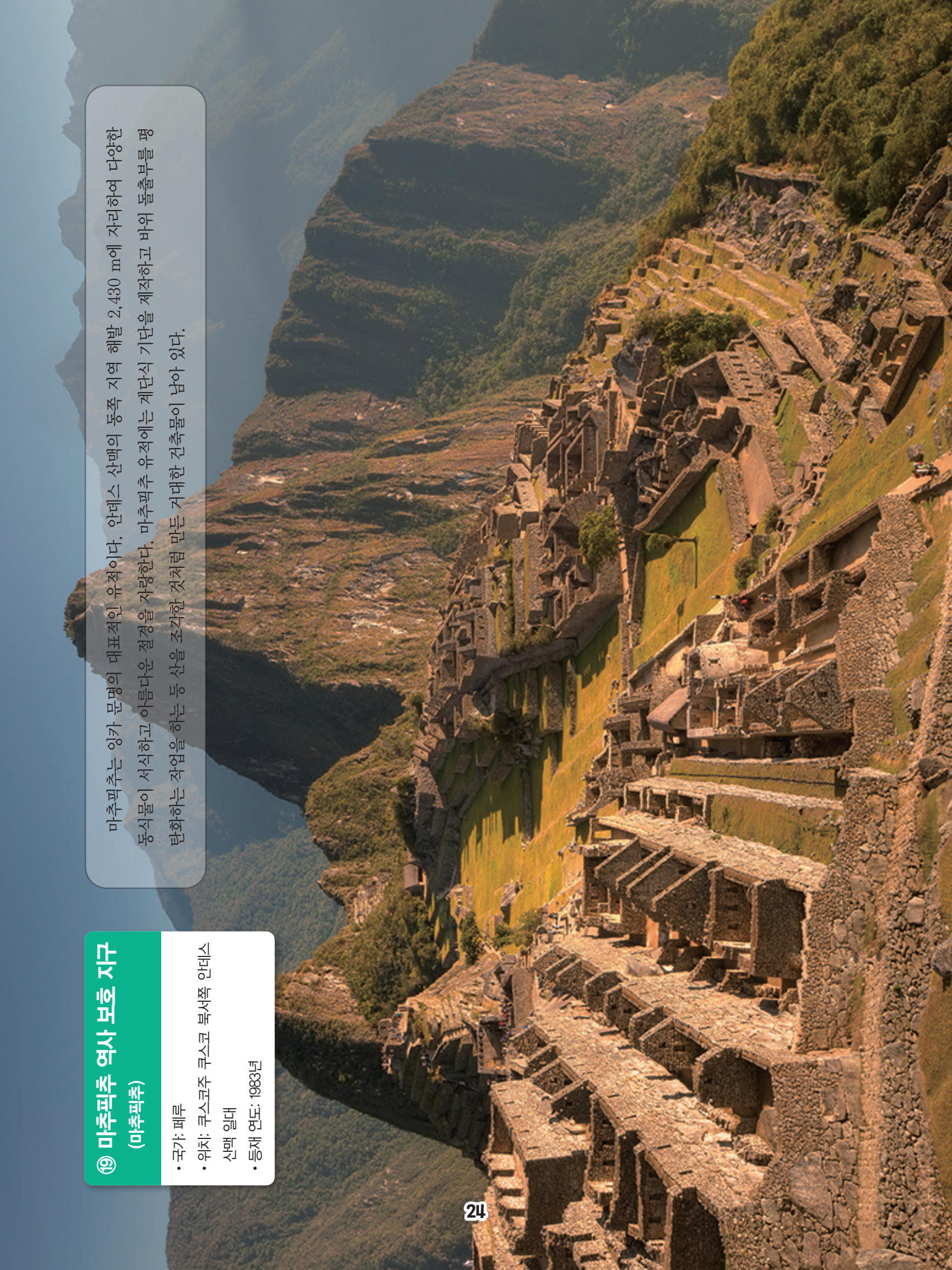
멕시코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16세기에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의 유적 위에 에스파냐 사람들이 세웠다. 소치밀코는 멕시코시티의 행정구로 아스테카 문명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지역을 통해 아스테카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하였던 도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에 지어진 개성 넘치는 건축물도 잘 보존되어 있다.



⑩ 마추픽추 역사 보호 지구 (마추픽추)

- 국가: 페루
- 위치: 쿠스코주 쿠스코 북서쪽 안데스 산맥 일대
- 등재 연도: 1983년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지역 해발 2,430 m에 자리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한다. 마추픽추 유적에는 계단식 기단을 제작하고 바위 돌출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등 산을 조각한 것처럼 만든 거대한 건축물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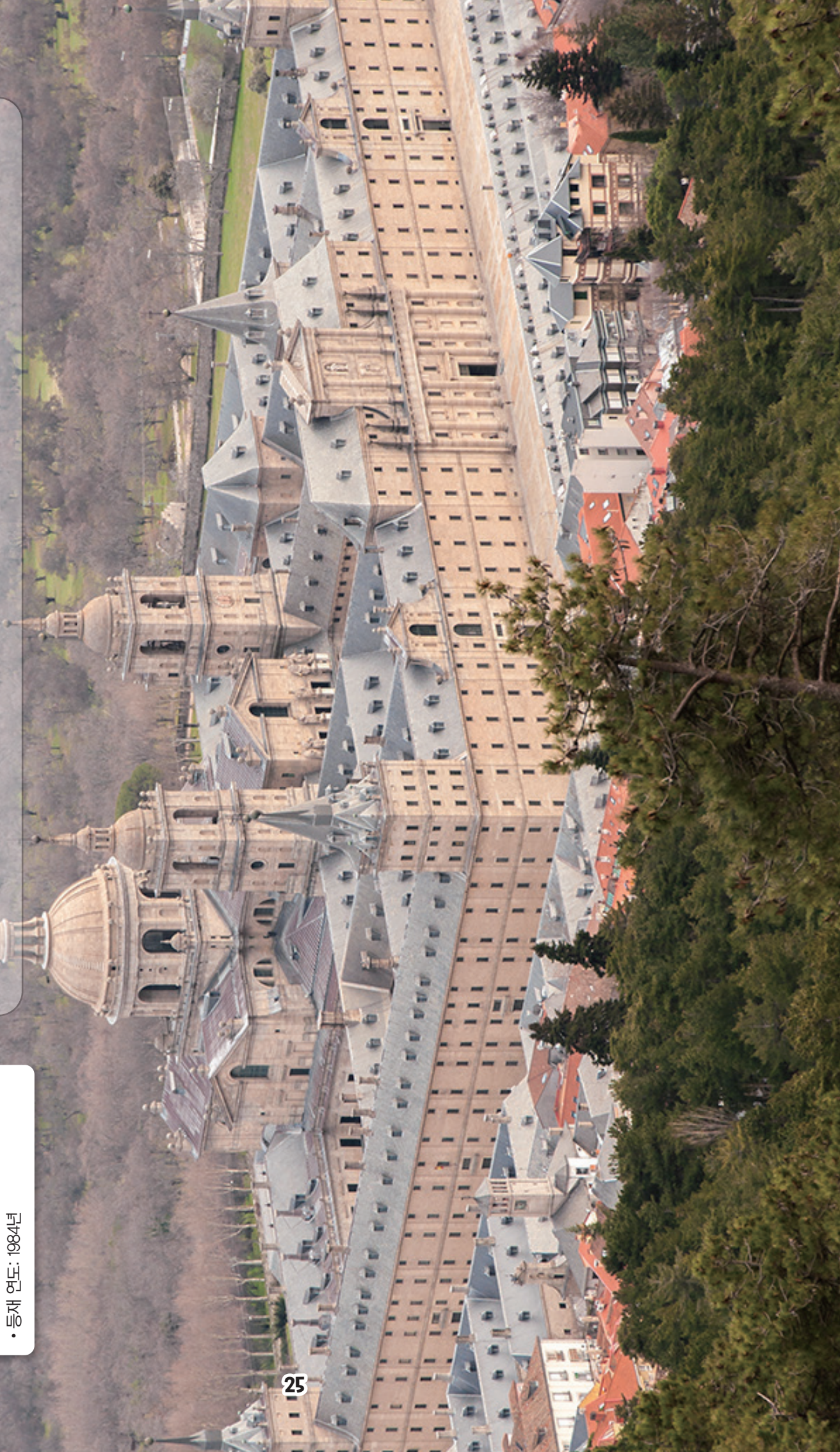


⑩ 마드리드의 에스코리알

수도원 유적

- 국가: 에스파냐
- 위치: 마드리드주
- 등재 연도: 1984년

에스코리알 수도원은 순교자 산 로렌소를 기념하고자 만든 곳이다. 수도원을 설계할 때 간결하고 소박하게 처리한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에스파냐 전통 건축과 대조를 이루지만, 소박한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 수도원은 수도인 마드리드의 외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펠리페 2세 때 당대의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②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 국가: 프랑스
- 위치: 일드프랑스주
- 등재 연도: 1979년(2007년 수정)
- 등재 기준: (i), (ii),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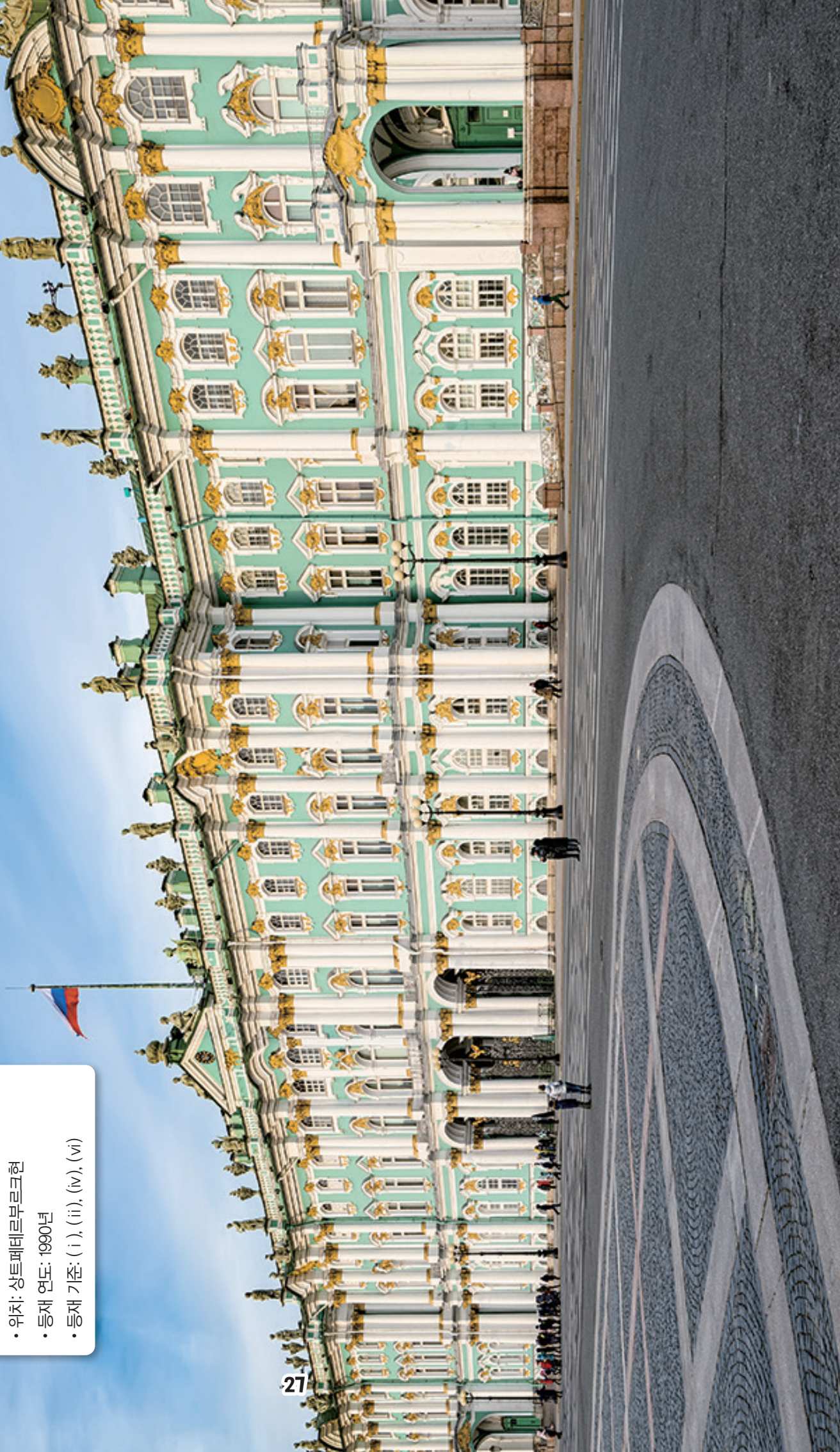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프랑스 왕들의 주요 거처였다. 바로크 건축의 대표 건축물이며, 호화로운 건물과 광대하고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을 갖추었다.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에서 이상적인 왕궁의 표본이 되었다.



⑫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 지구와 관련 기념물군 (에르미타시 미술관)

- 국가: 러시아
- 위치: 상트페테르부르크현
- 등재 연도: 1990년
- 등재 기준: (i), (ii), (iv), (vi)

상트페테르부르크는 18세기 러시아의 수도로, 도시 곳곳에 역사적인 기념물과 유물들이 있다. 이 도시에는 바로크 양식, 신고전주의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지은 건축물들이 많아 18세기에서 19세기 러시아와 핀란드의 건축과 예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곳이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장소라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이래로 포츠담에는 넓은 공원과 건물이 모인 복합 지구가 건립되었다. 이곳의 건축물과 정원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예술 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건물인 상수시 궁전은 이탈리아, 영국, 파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프리드리히 2세가 1745년에 건축하였다. 이 궁전은 유럽의 권력을 가진 군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23 포츠담·베를린의 궁전과 공원(상수시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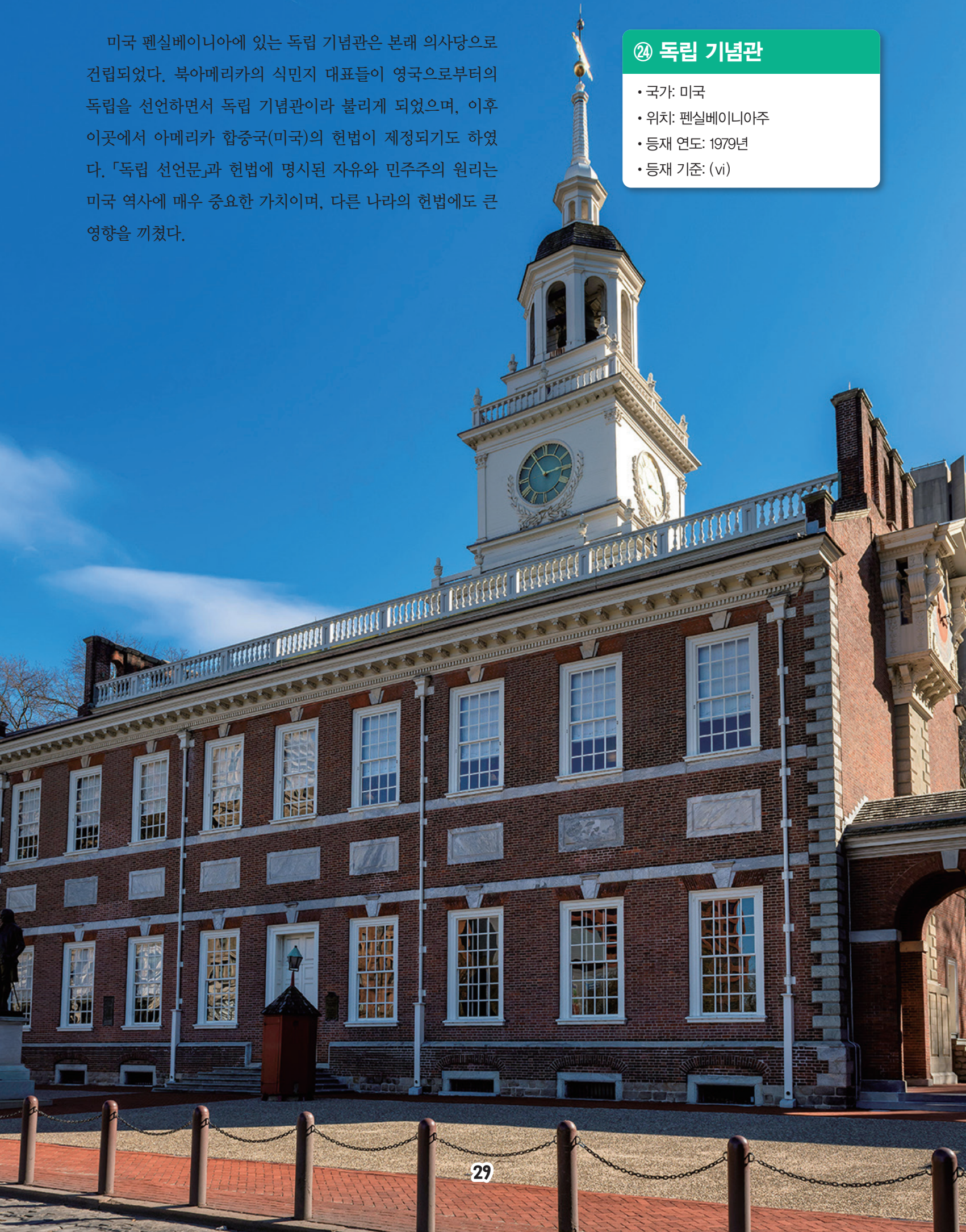
- 국가: 독일
- 위치: 브란덴부르크주, 베를린주
- 등재 연도: 1990년(1992년, 1999년 확장)
- 등재 기준: (i), (ii), (iv)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독립 기념관은 본래 의사당으로 건립되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립 기념관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이후 이곳에서 아메리카 합중국(미국)의 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독립 선언문」과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는 미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24 독립 기념관

- 국가: 미국
- 위치: 펜실베이니아주
- 등재 연도: 1979년
- 등재 기준: (vi)



파리의 센(Seine)강 주변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콩코르드 광장 등 과거부터 보존되어 온 역사적 건축물들과 현대에 새롭게 건축된 독창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파리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도시 행정가인 오스만 남작이 센강 주변에 커다란 광장과 대로를 설계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여러 나라의 도시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

25 파리의 센강 변(노트르담 대성당)

- 국가: 프랑스
- 위치: 일드프랑스주
- 등재 연도: 1991년
- 등재 기준: (i), (ii)



㉔ 슬테어(방직 공장)

- 국가: 영국
- 위치: 잉글랜드 웨스트요크셔주
- 등재 연도: 2001년
- 등재 기준: (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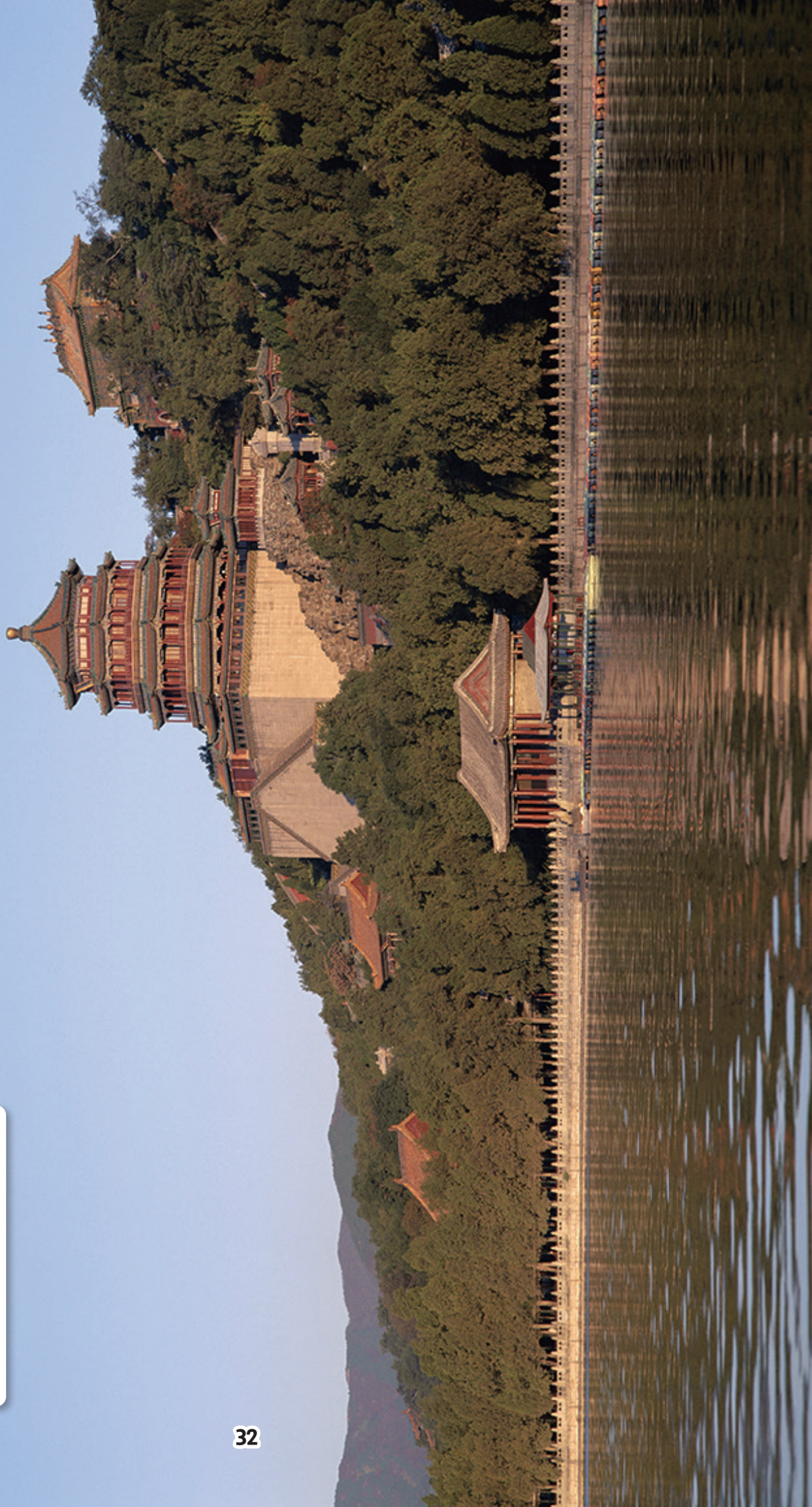
슬테어에는 19세기 후반 산업 마을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방직 공장, 노동자 숙소, 공공 기관이 높은 수준의 건축학적 기준에 따라 지어졌다. 방직 공장의 장비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였고, 노동자 숙소에는 물과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두어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경제적 발전에서 직물 산업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던 운영주의를 보여 준다.



㉓ 베이징의 황실 정원, 이 화원

- 국가: 중국
- 위치: 베이징 북서쪽 10 km
- 등재 연도: 1998년
- 등재 기준: (i), (ii), (iii)

이 화원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이다. 호수와 산을 중심으로 궁전, 정자, 사원, 탑 등의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화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중국 정원 기술의 철학과 예술성을 보여 주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28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국가: 폴란드
- 위치: 리틀 폴란드(마워폴스카)주
- 등재 연도: 1979년
- 등재 기준: (vi)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독일 나치가 만든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수용소였다. 수용소의 요새화된 벽, 철조망, 교수대, 가스실, 소각장 등은 이곳에서 벌어졌던 대량 학살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 준다. 이곳은 독일 나치가 시행하였던 민족 말살 정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소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29 골레스탄 궁전

- 국가: 이란
- 위치: 테헤란주
- 등재 연도: 2013년
- 등재 기준: (ii), (iii), (iv)

골레스탄 궁전은 이란의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물 중 하나로, 여러 왕조에 걸쳐 건설되고 증진되었다.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골레스탄 궁전의 증진을 추진하였고, 이때 서양의 건축 기술을 적용하였다. 전통적인 페르시아의 예술과 서양의 건축 및 기술 요소가 융합되어 골레스탄 궁전만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 냈다.



① 고창·회순·강화 고인돌
유적(강화 부근리 지석묘)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 등재 연도: 2000년
- 등재 기준: (iii)

고창·회순·강화 고인돌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고인돌 유적이다. 고인돌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지만 주로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이 세 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형식의 다양성이나 밀집 분포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고인돌 문화의 형성 과정, 청동기 시대의 사회 구조, 동북아시아 선사 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②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익산 미륵사지 석탑)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등재 연도: 2015년
- 등재 기준: (ii), (iii)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백제의 옛 수도였던 도시들에 남아 있는 유적으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3개 시·군의 8곳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이다. 또한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석탑 등은 백제만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 준다.



③ 가야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상도 일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등재 연도: 2023년
- 등재 기준: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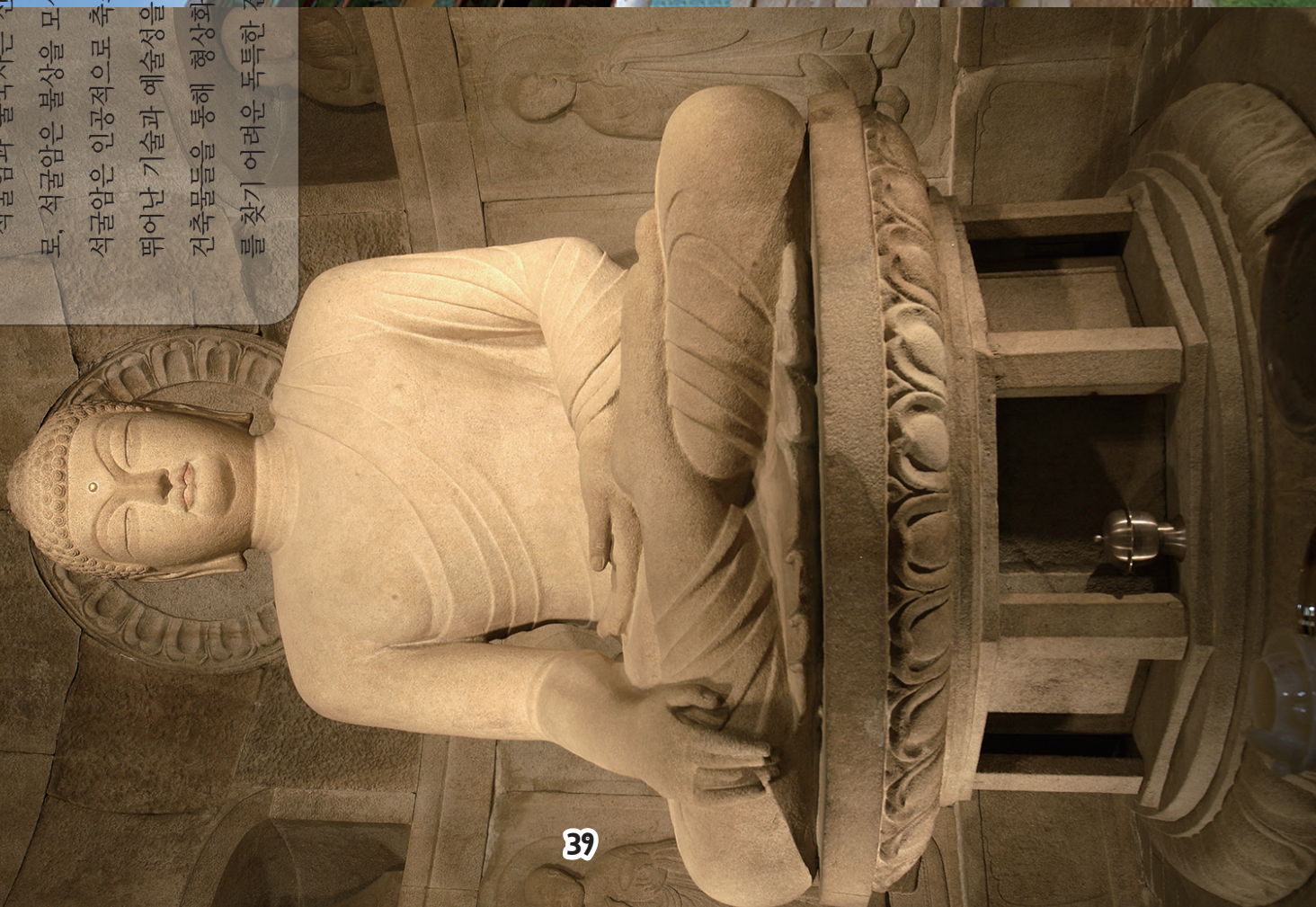
가야 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였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합천 육전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다. 가야 고분군은 지리적 분포, 입지, 부장품을 통해 다수의 개별 정치체가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가야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나타낸다. 주변의 중앙 집권 국가와 공존하여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한 가야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④ 석굴암과 불국사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 등재 연도: 1995년
- 등재 기준: (i), (iv)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으로, 석굴암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고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을 통해 신라인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 준다. 불국사는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물들을 통해 형상화되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⑥ 해인사 장경판전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 등재 연도: 1995년
- 등재 기준: (iv), (vi)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장경판전은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건물 배치, 창호의 위치와 크기 등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⑦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07년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총 81,258판 목판에 새긴 대장경판으로, 팔만대장경판이라고도 불린다. 팔만대장경판은 경판이 거의 온전하게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이며, 오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다양한 언어의 불교 경전, 계율, 교리 및 불교 관련 역사를 번역하고 집대성하였기에 당시 고려 시대의 정치, 문화,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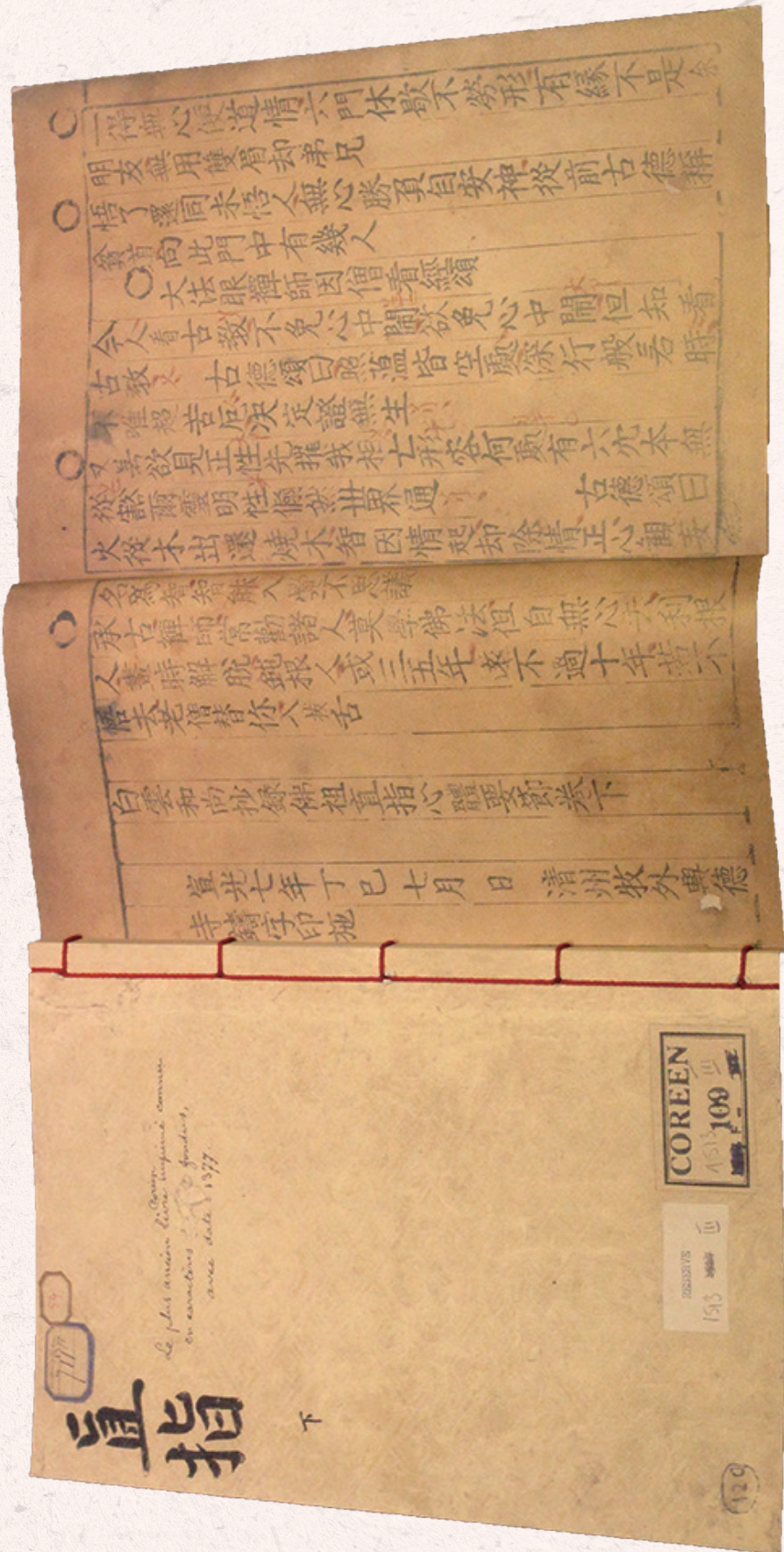


⑧ 『불조직지심체요절』 -

하권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01년

『불조직지심체요절』은 부처와 고승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으로, 1377년 청주의 흥덕사라는 옛 절에서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되었다. 고려의 옛 책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다른 책(『상정고금예문』)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남아 있다. 본래 상, 하 2권으로 인쇄되었으나 상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만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⑨ 종묘(종묘 정전)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 등재 연도: 1975년
- 등재 기준: (iv)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를 기리는 유교 사당으로, 왕이 국기와 백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곳이다. 종묘의 건축은 유교를 바탕으로 공간 계획이 매우 독특하게 구성되었고, 모든 건물과 시설물이 조선 시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사 의례와 춤, 음악 또한 잘 보존되어 오늘날에도 '종묘 제례'라고 불리는 제사 의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⑩ 『훈민정음(해례본)』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은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에 해설과 용례를 덧붙여 쓴 해설서를 말하며, 세종이 한글 창제를 공표하는 반포문과 함께 훈민정음 판본에 포함되어 반포되었다. 훈민정음은 28개의 표음 문자로 된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문자로, 문자를 조합하면 한자로 적을 수 없는 우리말을 쓸 수 있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민족 문화 발달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늘날 유네스코는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 대 왕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⑪ 한국의 유교 책판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15년

유교 책판은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이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문학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판의 내용은 모두 공론으로 만들어졌고, 유교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공통점이 담겨 있다. 책판의 판각, 인쇄, 배포 등의 과정은 공동체에서 나누어 부담하는 공동체 출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책판은 한 개씩만 만들어져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다.



⑫ 『조선왕조실록』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1997년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왕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조의 수많은 분야의 내용이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사료이다. 후임 왕 시대에 전왕의 실록이 편찬되었으며, 현재 4개 본의 실록이 보존되어 있다.



⑬ 『승정원일기』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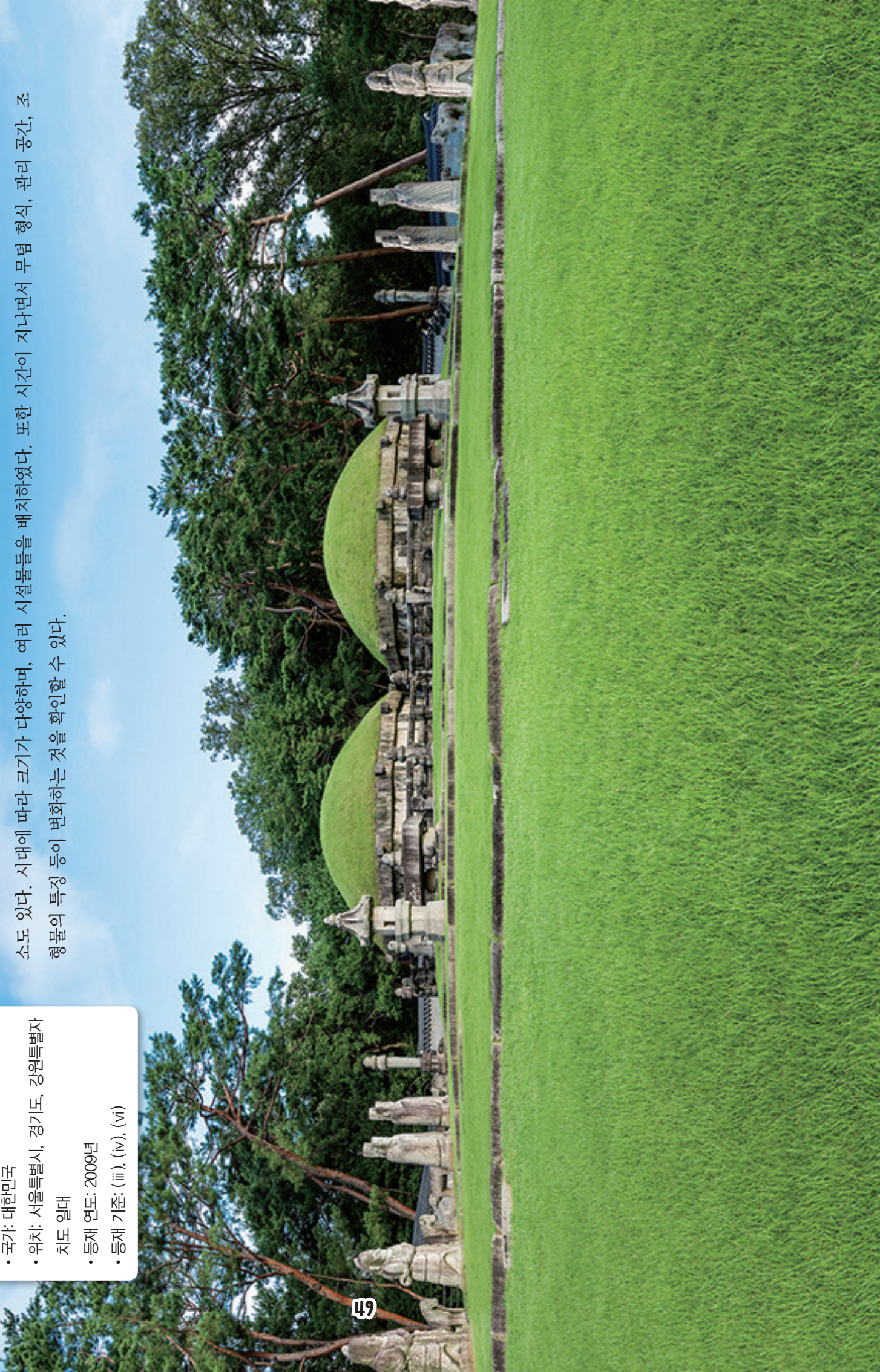
『승정원일기』는 조선 왕조에 관한 방대한 규모의 역사 기록과 국가 기밀을 담은 사료이다. 조선 시대에 왕의 명령 출납을 담당하였던 승정원에서 왕의 하루를 장소와 시간대별로 기록하여 매일 일기로 작성하였는데, 후대 왕이 전왕의 실록을 편찬할 때 이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선 전기의 자료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현재 인조부터 순종까지의 기록이 원본 한 부만 남아 있다.



14 조선 왕릉(한릉)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대
- 등재 연도: 2009년
- 등재 기준: (iii), (iv), (vi)

조선 왕릉은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조선 태조부터 대한 제국 순종까지 27명의 왕과 왕비,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가 묻혀 있다. 보통 남쪽에 묻어 있고 뒤는 언덕인 배산임수의 터에 자리 잡았으며, 무덤뿐만 아니라 의례를 위한 장소도 있다. 시대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며, 여러 시설물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 형식, 관리 공간, 조형물의 특징 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한국의 서원(안동 도산서원)**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상도, 대구광역시, 전라도, 충청도 일대
- 등재 연도: 2019년
- 등재 기준: (iii)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사림에 의해 건립된 조선 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 유형 중 하나로,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사림은 서원을 이끌면서 성리학 고전과 문학 작품을 가르쳤고, 성리학자들의 제사를 지내며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서원에는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으며, 교육과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6 『난중일기』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13년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부터 노량 해전 직전까지 쓴 일기이다. 군 통솔자가 쓴 개인의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지만 매일의 전쟁 상황, 날씨, 전장의 지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서민들의 생활상과 여러 편의 시도 포함되어 있다. 임진왜란 관련 사료 중 육지 전투의 사료는 많으나 해전에 관한 자료로는 『난중일기』가 유일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다.



⑰ 『동의보감』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09년

『동의보감』은 17세기 허준이 편찬한 의학 백과사전으로, ‘동양 의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명에 따라 이전까지 전해지던 동아시아의 의학 지식과 치료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하였다. 일반 백성을 위한 공공 의료와 예방 의학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는 허준이 손으로 직접 써서 내의원에서 간행한 원본 초판이 남아 있다.



18 남한산성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일대
- 등재 연도: 2014년
- 등재 기준: (ii),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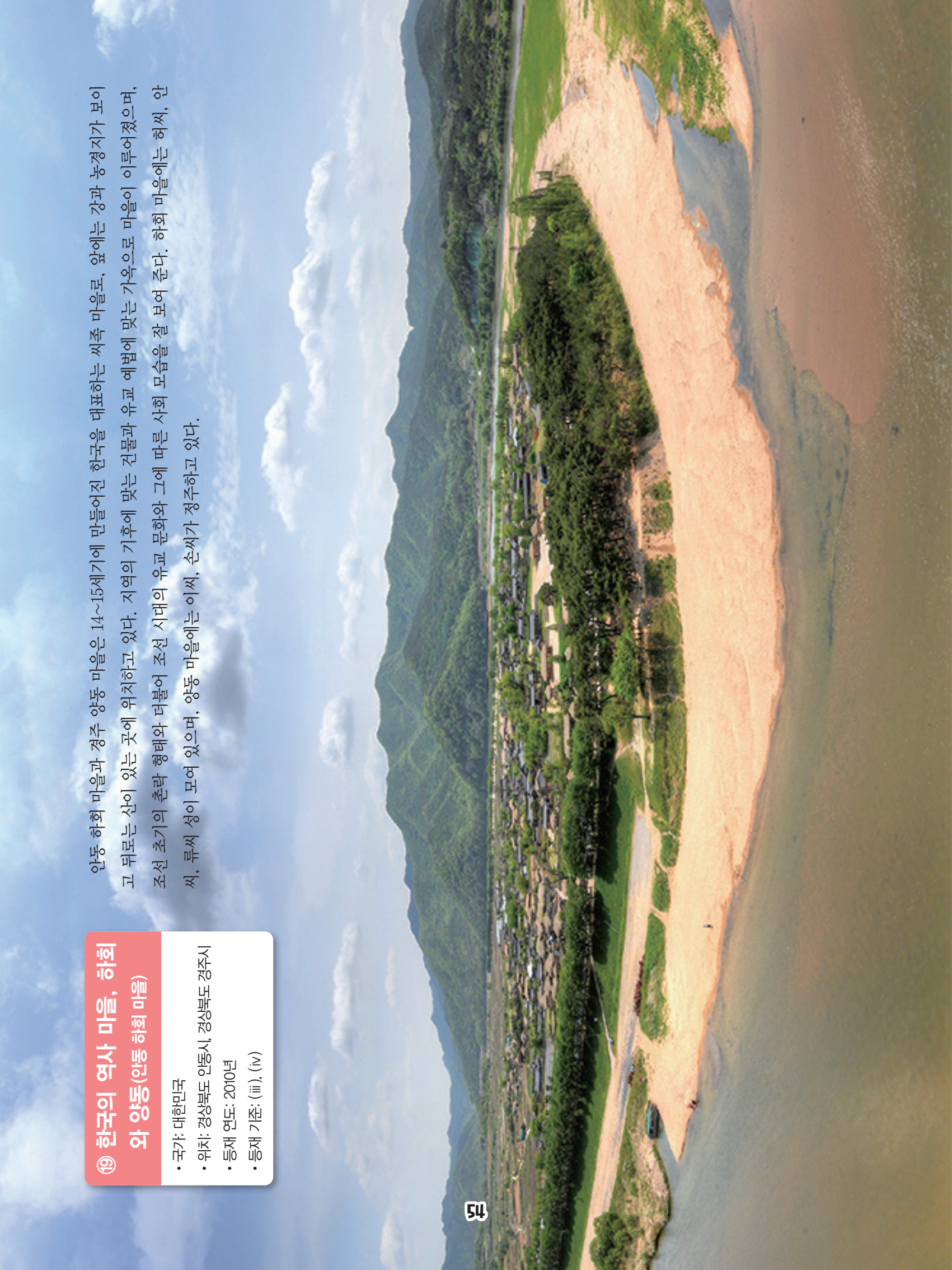
남한산성은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임시 수도로 삼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산성 도시이다. 이 때문에 남한산성 안에는 다른 산성들과는 다르게 마을, 종묘와 사직, 임금의 머물 행궁이 마련되어 있다. 험한 지형을 활용하여 성곽과 방어 시설을 만들었고, 여러 시대를 거쳐 증축되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성곽 축조 기술도 확인할 수 있다.



19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
와 양동(안동 하회 마을)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 등재 연도: 2010년
- 등재 기준: (iii), (iv)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은 14~15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을 대표하는 씨족 마을로, 앞에는 강과 농경지가 보이고 뒤로는 산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의 기후에 맞는 건물과 유교 예법에 맞는 가옥으로 마을이 이루어졌으며, 조선 초기의 촌락 형태와 더불어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와 그에 따른 사회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하회 마을에는 허씨, 안씨, 류씨 성이 모여 있으며, 양동 마을에는 이씨, 손씨가 정주하고 있다.



②0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보은 법주사)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
- 등재 연도: 2018년
- 등재 기준: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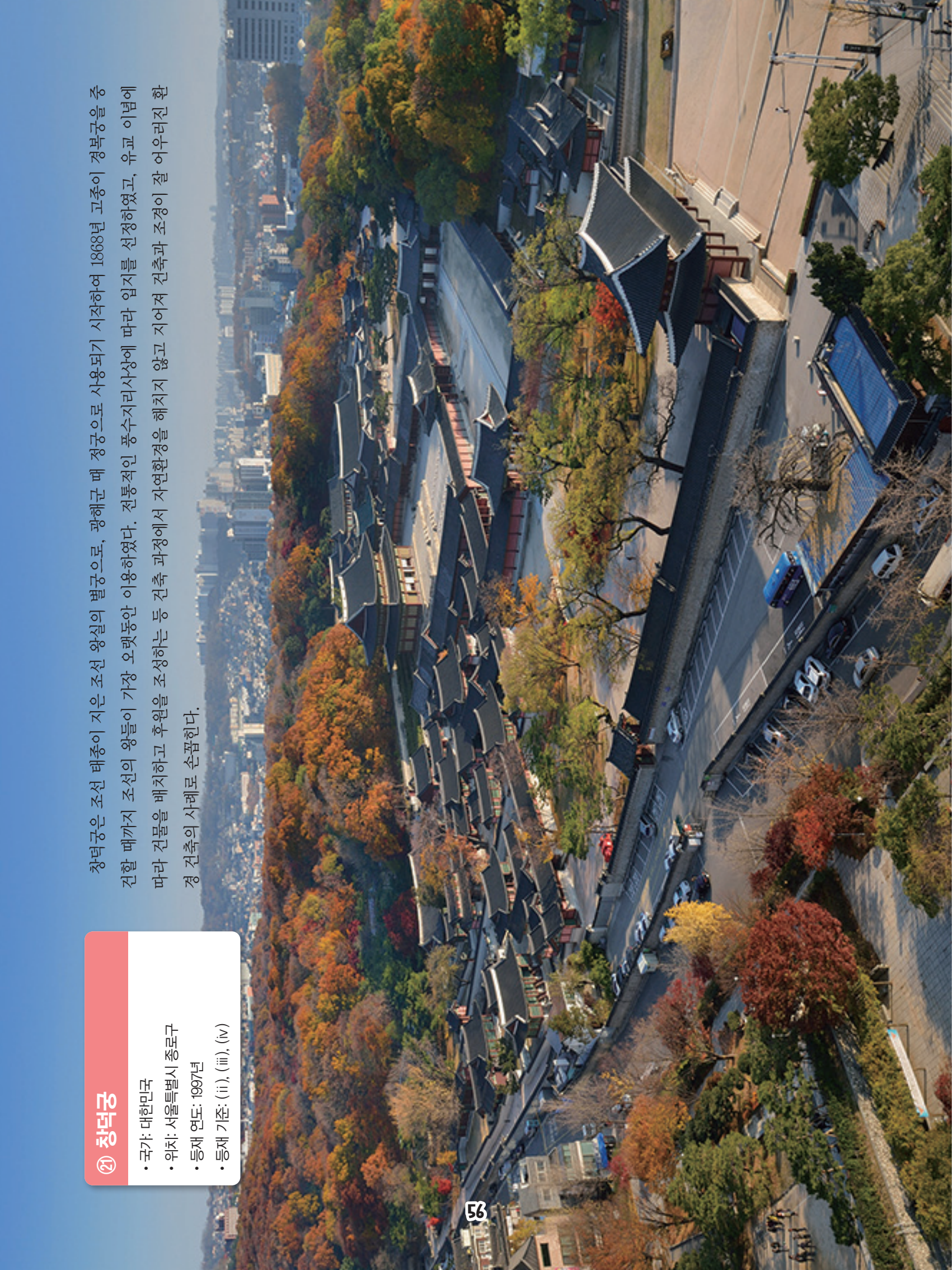
산사는 한국의 불교문화 전통을 간직한 유·무형의 불교유산을 말한다.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승려와 신자의 수행, 신앙, 생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여 오늘날까지 불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산사를 구성하는 7개의 사찰은 한반도 남쪽에 분포하고 있다.



21 창덕궁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 등재 연도: 1997년
- 등재 기준: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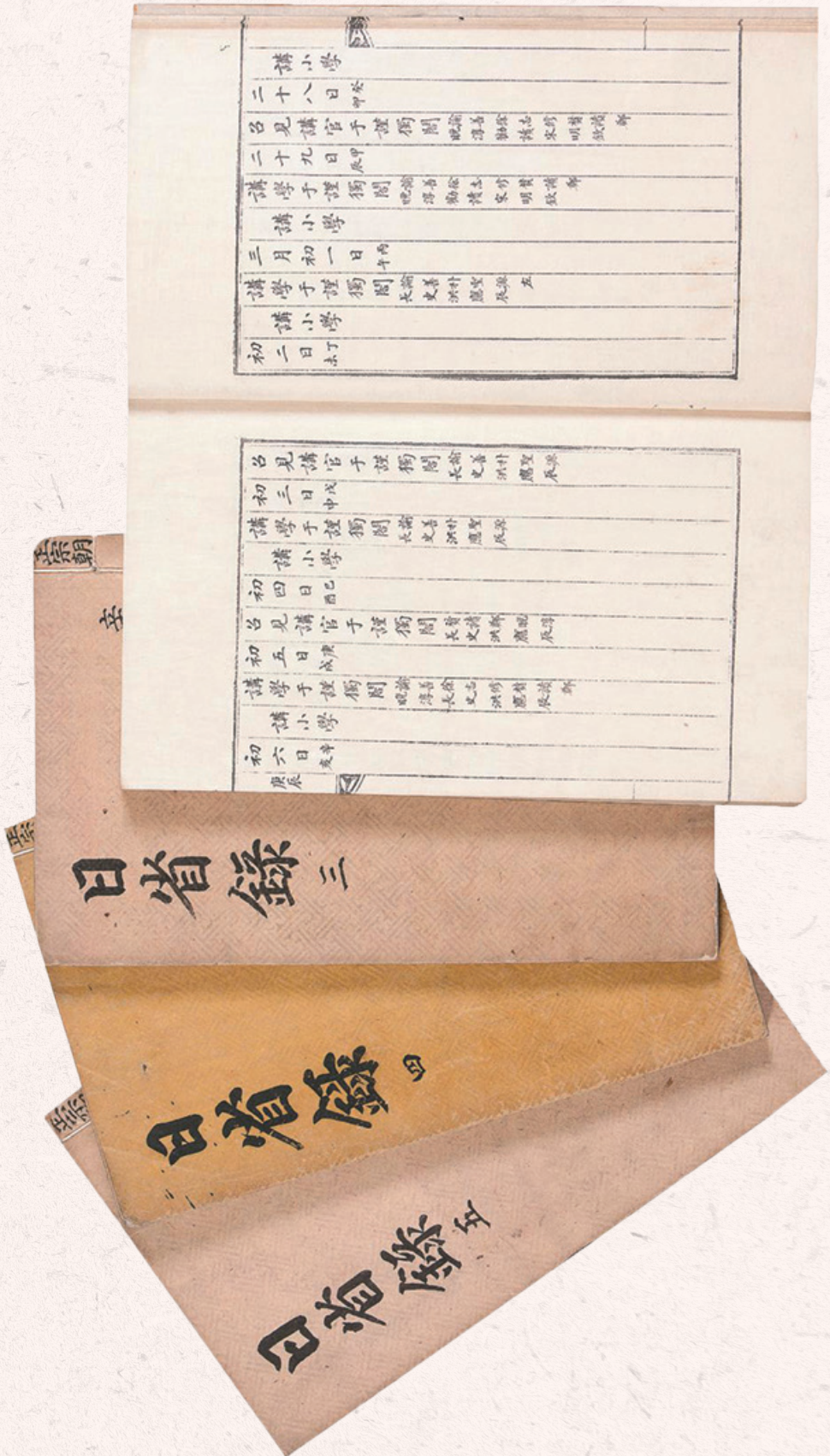
창덕궁은 조선 태종이 지은 조선 왕실의 별궁으로,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용하였다. 전통적인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였고, 유교 이념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후원을 조성하는 등 건축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어져 건축과 조경이 잘 어우러진 환경 건축의 사례로 손꼽힌다.



⑫ 『일성록』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11년

『일성록』은 영조부터 순종까지 150여 년간 국정 운영 내용을 정리한 국왕의 일기로,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실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일성록』은 수록 내용이 요점별로 정리되고 기사마다 표제가 붙어 있어 실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또한 18세기에서 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 교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시대 흐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어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3 화성(팔달문)

- 국가: 대한민국
- 위치: 경기도 수원시
- 등재 연도: 1997년
- 등재 기준: (ii), (iii)

화성은 조선 정조가 자신의 부친인 장헌 세자의 묘를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옮기면서 새로 만든 성곽이다. 거주지의 기능과 방어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실학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집약하여 성을 쌓았다. 『화성성역의궤』에 화성의 설계도, 건축 방법, 동원 인력 등 화성 건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다.



②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17년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일본 에도 막부 요청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조선이 파견한 외교 사절단인 통신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 교류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을 경험한 양국이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지혜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 이는 동아시아 전역에 정치적 안정과 장기적인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항구적인 평화 공존과 타문화 존중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보여 준다.



▶ 「왜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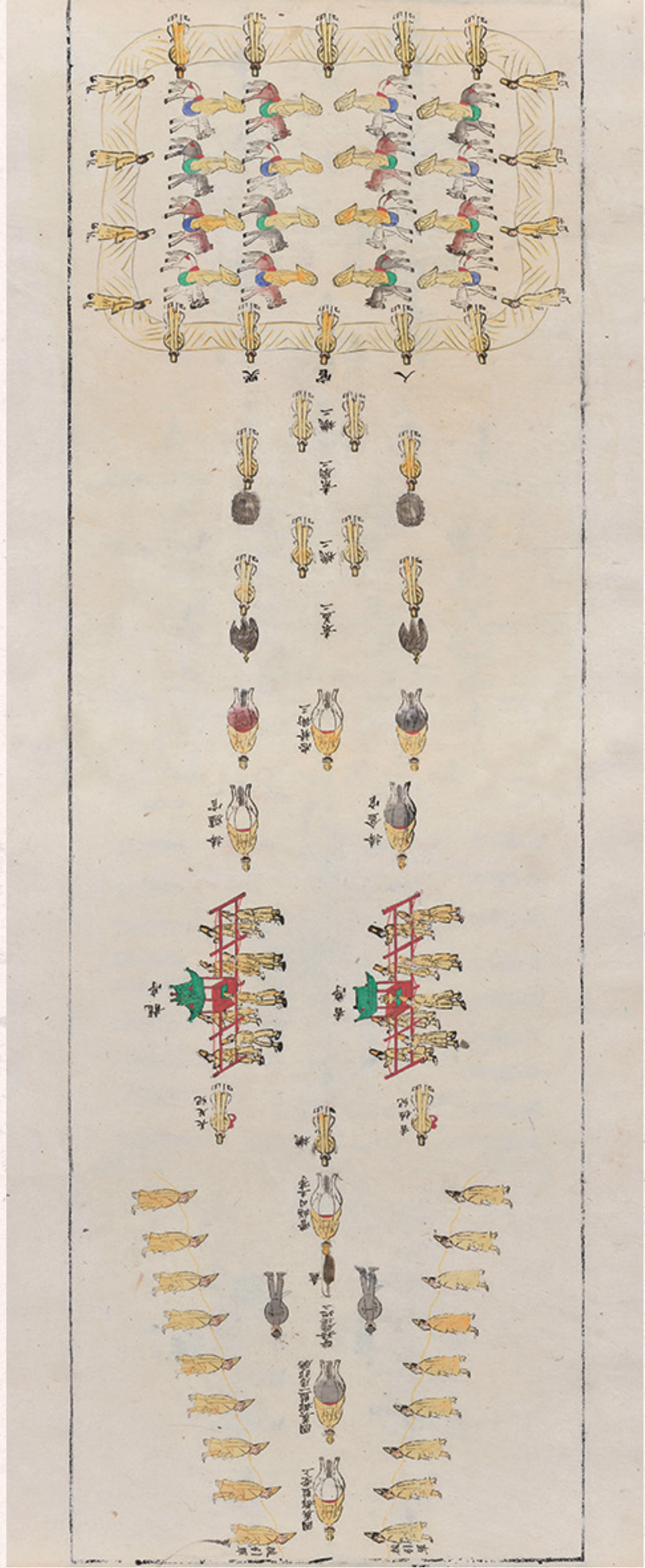


▶ 「辛未通信日錄」

25 조선 왕조 『의궤』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07년

조선 왕조 『의궤』는 조선 왕조 500년간 이루어진 왕실 의례에 관한 기록물로, 왕실 생활의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남긴 기록이다. 국가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절차와 의례를 강조한 유교적 예치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형식은 조선 왕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의궤』의 글과 그림은 같은 내용이라도 각각 손으로 옮겨 썼기 때문에 모든 장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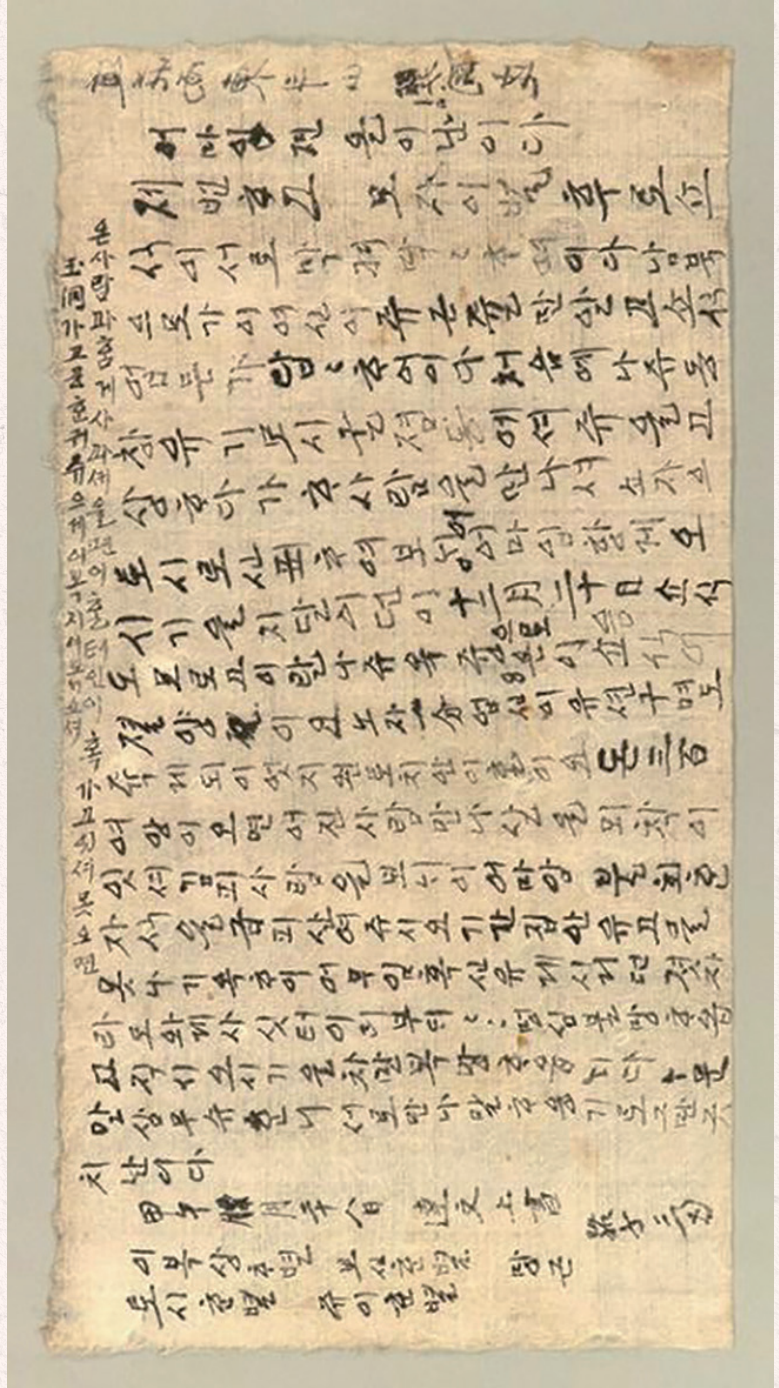
▲ 명성 황후 국장 도감

26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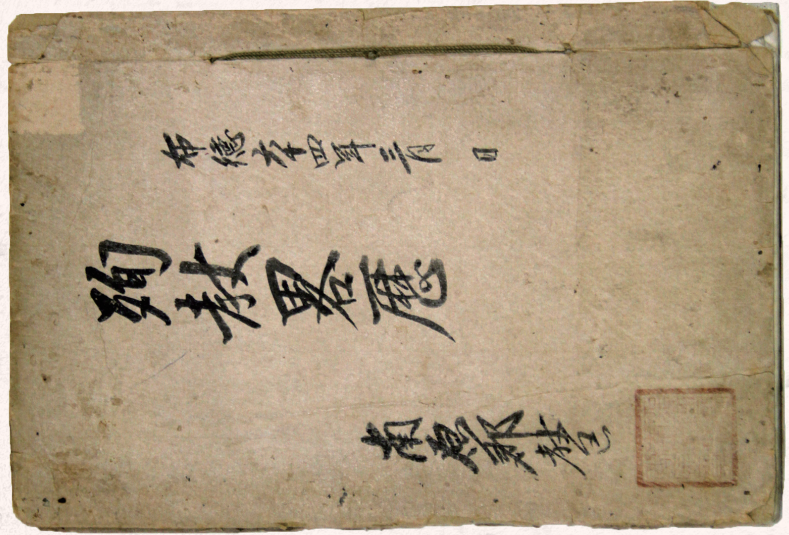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23년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로, 동학 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된다.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은 다양한 관점에서 농민 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 준다.

▶ 동학 농민군 한달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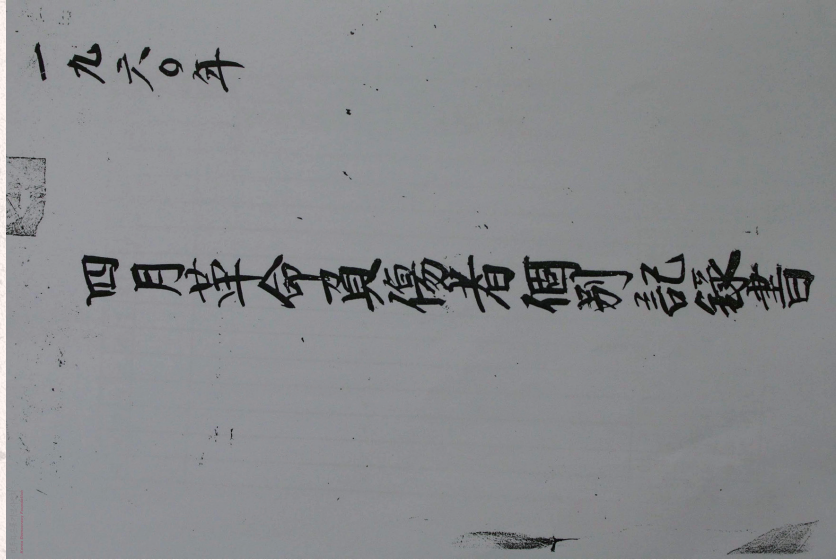
▶ 『순교약력』



㉘ 4·19 혁명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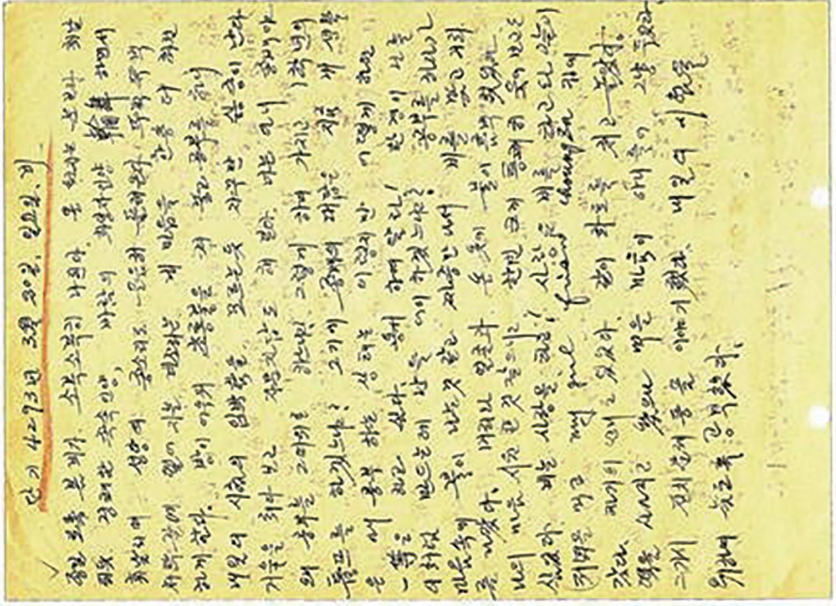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23년

4·19 혁명 기록물은 1960년 2·28 대구 학생 시위부터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까지의 진후 과정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4·19 혁명은 제3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비폭력 시민 혁명으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독재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1960년대 세계 학생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4·19 혁명 기록물은 기록 유산으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4·19 혁명 부상자 개별 기록서

일련 번호	일련 번호	이름	성명	직업	주소	부상 부위	진단 내역	치료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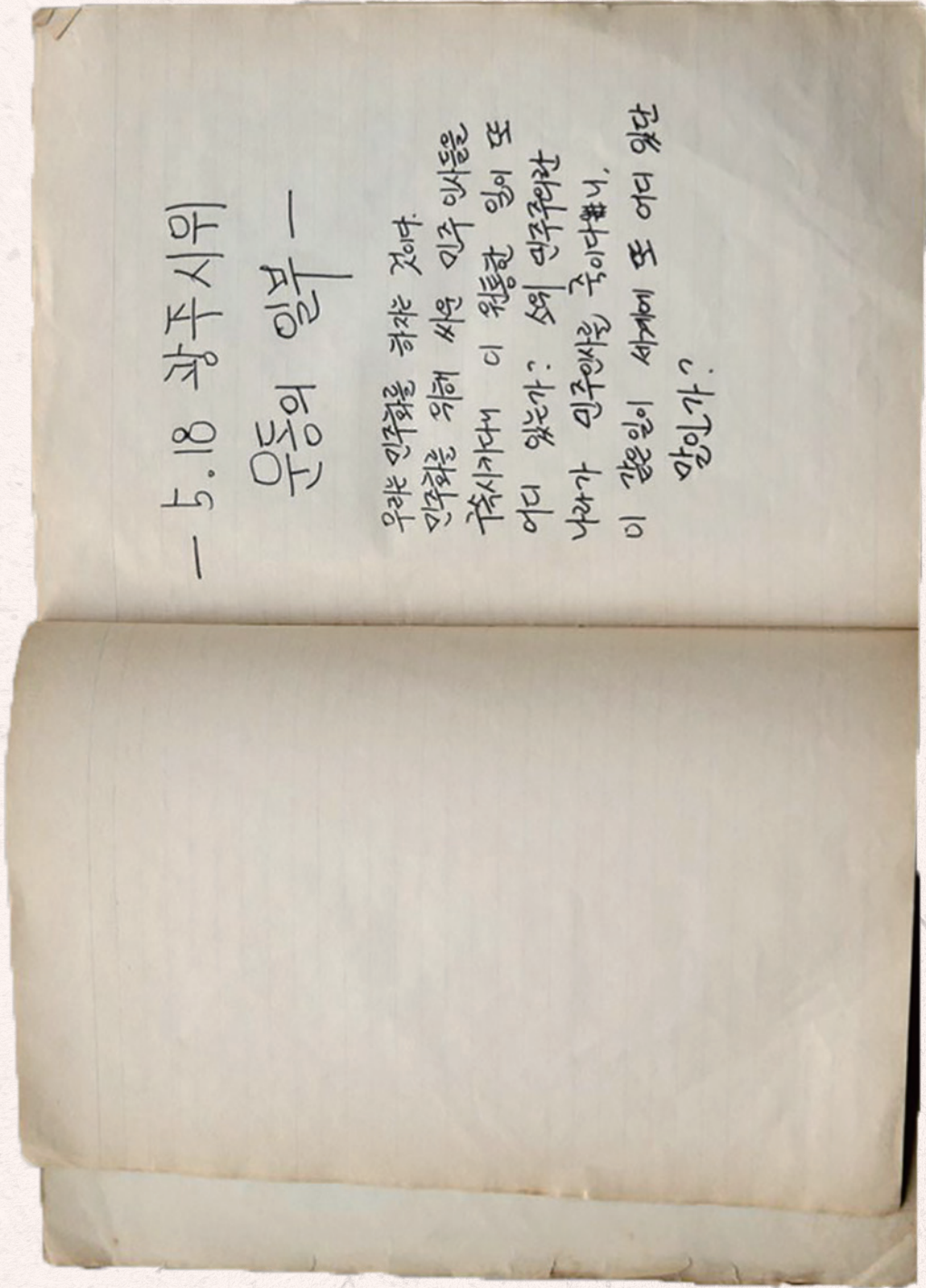


▲ 마산 지역 학생 일기(1960. 3. 20.)

② 1980년 인권 기록 유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 국가: 대한민국
• 등재 연도: 2015년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 항쟁, 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과 관련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자료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사업이라는 5대 원칙은 유엔 인권위가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5.18 광주 시위
운동의 일부 —

우리는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민주 인사들을
추축시키는데 이 원동력 앞어 또
어디 있는가? 소위 민주주의란
나라가 민주인사를 죽이다하니,
이 같은 일이 세계에 또 어디 있던
말인가?